

# 시끄러워 잠 못드는 순천

## 44개 도시 소음측정망 공개

지난해 순천시내 전용 주거지역 야간 소음이 전국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찌는 듯한 열대야로 잠 못드는 상황에서 충간소울 뿐 공사장 소음, 개 짖는 소리, 음악 소리 등도 주민들간 생활 분쟁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끄러워 잠 못드는 순천?=환경부가 20일 내놓은 '2012년 전국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44개 도시 중 광주, 서울 등 33곳의 전용주거지역 야간 소음측정치가 활

경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소음 정도가 57데시벨(dB)로 조사 대상 도시 중 가장 높았다. 이 정도 소음 수치는 진공청소기 소음 수준이다. 순천의 야간 소음 수치는 지난 2007년 39dB에 불과했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여수세계 박람회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등 공사가 활발하게 이뤄진데, 관광객 방문도 잦아지면서 소음수치도 평균이 높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수(39dB)와 목포(37dB)는 야간 소음 수치가 환경 기준인 40dB

이하로 조사됐다. 여수와 목포는 최근 3년간 낮과 밤 시간대 모두 기준 이하의 소음 수치를 보여 '조용한 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도 비슷해 지난해 동구 서석동과 남구 사동 등 전용주거지역 낮·밤 소음 수준이 각각 53dB·48dB로 조사 폐 환경 기준(낮 50dB·밤 40dB)을 웃돌았다.

◇소음 민원 급증... '폭염시비'도 잣아져

20일 광주시가 내놓은 '2010~2012년 소음관련 민원현황'에 따르면

## 야간소음 57dB... 진공청소기 가동 수준

민원 급증... 시민들 '폭염시비'도 잣아져

생활 소음 관련 민원은 지난해 1343 건으로, ▲2010년 800건 ▲2011년 845건에서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사 현장과 관련된 소음 민원이 가장 많았다. 공사장 소음 민원은 ▲2010년 480건 ▲2011년 495건 ▲2012년 749건으로 대폭 늘었다. 광주시는 다세대 원룸 건축이 잇따르면서 소음 관련 민원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 했다.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소음 문제로 시비돼 경찰서를 찾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김모(37)씨는 지난 19일 오후 광주

시 광산구 운남동 A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주민들이 생활체조를 하면서 틀어놓은 음악이 시끄럽다며 스피커를 부수고 체육강사를 폭행한 혐의로 광산경찰에 입건됐다. 김씨는 "매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1년간 생활체조를 하면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 시끄러워 살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박모(33)씨도 19일 밤 광주시 남구 월산동 자신의 집 옆 이모(64)씨가 키우는 개 짖는 소리를 참지 못하고 화분을 던지고 항의하다 이씨와 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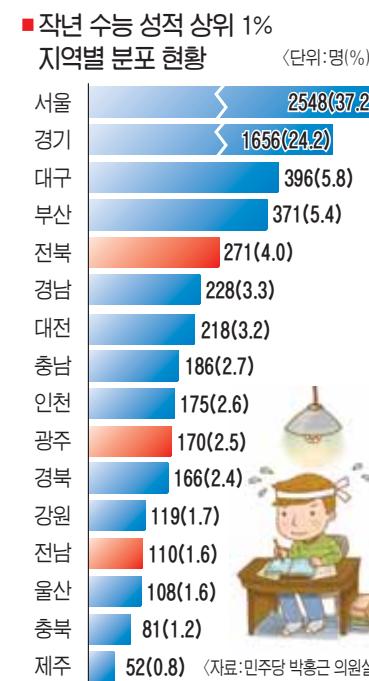
폭행해 남부경찰에 입건됐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폭염속 농익는 해바라기

20일 광주시 남구 대자동 하촌마을을 찾은 방문객들이 주민들이 직접 키운 해바라기를 구경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하촌마을은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수수, 해바라기밭 걷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인구 수 절반 전북, 수능성적 상위 1% 광주·전남과 대등한 이유는

### '블랙홀 상산고' 광주 최상위권 흡수

#### 올해도 35명 진학

광주·전남보다 인구가 절반 수준인 전북이 수능 성적 1%에 든 최상위 학생 수에서 광주·전남과 맞먹었다. 그 이유는 뭘까?

지난 19일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인별 성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수능 성적 상위 1%에 속한 수험생 6855명 가운데 광주지역 학생은 170명(2.5%), 전남은 110명(1.6%)으로 총 280명(4.

1%)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548명으로 37.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1656명(24.2%), 대구 396명(5.8%), 부산 371명(5.4%), 전북 271명(4.0%), 경남 228명(3.3%), 대전 218명(3.2%), 충남 186명(2.7%), 인천 175명(2.6%) 순이었다.

전북의 특출한 성적은 광주 등 타 지역의 우수 인재 유출에 따른 결과다.

고교별로는 대원외고 342명, 명덕 외고 244명, 용인외고 231명, 대일외고 200명, 한영외고 198명, 상산고 159명, 안양외고 148명 등 외국어고등학교와 자립형사립고에서 무더기로 포함

됐다.

특히, 전북은 수도권인 경기도를 제외한 도단위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이 배출했다. 이는 '상산고의 힘'으로 분석된다. 전북지역 수능 성적 상위 1% 217명 중 58.7%인 159명이 상산고 출신인 것이다.

전북의 특출한 성적은 광주 등 타 지역의 우수 인재 유출에 따른 결과다.

실제 광주에서만 올해 상산고로 남자 20명, 여자 15명 등 35명이 유출 됐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일반

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자율형사립고는 성적 우수자 선발 기준을 없애 사실상 자사고를 무력화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같은 최상위 인재 유출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박모씨는 "중학교 성적이 최상위권인 학생의 경우 자사고·특목고 진학을 생각한다"며 "하지만 광주의 경우 외고도 없고 고향고도 영재학교로 전환돼 최상위권은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롭 05시 57분 해금 19시 14분

맑음 19시 05분 달점 05시 53분

광주	목포	여수	나주	완도	구례	강진	해남	장흥	순천	영광	진도	전주	군산	남원	흑산도
맑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맑음											
25/35°C	26/34°C	26/33°C	24/35°C	26/34°C	24/36°C	25/34°C	25/35°C	25/34°C	25/34°C	25/35°C	25/36°C	15/36°C	25/34°C	24/35°C	26/32°C

막바지 무더위

맑은 가운데 열대야 나타나는 날 있겠다.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오전〉 비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일비다	북동~동	0.5~1.0m	0.5~1.0m	0.5~1.5m	0.5~1.5m
남해 서부 일비다	북동~동	1.0~1.5m	1.0~1.5m	1.5~2.5m	1.5~2.5m
남해 서부 일비다	동~남동	1.0~2.0m	1.0~2.0m	1.5~2.5m	1.5~2.5m
〈오후〉 비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일비다	북동~동	0.5~1.0m	0.2:11	14:17	07:27
남해 서부 일비다	동~남동	1.0~2.0m	09:03	21:37	19:35
남해 서부 일비다	동~남동	1.5~2.5m	21:37	23:31	15:03

## 전남교육청, 4개 지역 교육장 등 보직인사

전남도교육청은 20일 9월1일자로 4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주요 보직자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나주교육청 교육장에 오인성 본청 교원인사과장이, 광성교육청 교육장에 정기식 정책기획관이, 장성교육청 교육장에 양연옥 장학기획담당장학관이, 신안교육청 교육장에 김제형 신안 교육지원과장이 임명됐다.

전남도교육청은 "현장 경험과 행정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보직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본청 정책기획관에는 노형석 영광교육청 교육지원과장이, 교육진흥과장에 임용운 용당초 교장이, 교원

인사과장에 김재인 중등인사담당학관이, 체육복지과장에 염세철 병영정보과학교과교장이 자리로 옮겼다.

직속기관으로는 전남과학교육원에 장진규 교육진흥과장이, 전남유아교육진흥원장에 김정경 유아교육담당장학관이 임명됐다.

전남도교육청은 "현장 경험과 행정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보직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본청 정책기획관에는 노형석 영광교육청 교육지원과장이, 교육진흥과장에 임용운 용당초 교장이, 교원

임명은 26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수능 원서접수

### 내일부터 내달 6일까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7일 시행하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원서를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원서를 받지 않는다.

원서 제출 후 시험 영역과 과목 등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싶으면 9월 4~6일 기존 원서 접수처에 변경신청서를 내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300**

알로에겔 Green aloe gel

“  
국내 최고 함량으로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그린알로에’의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합성보존료, 합성감미료, 합성착향료가 없는  
'3無 제품'으로 우수한 품질력과 소비자의 기대를  
만족시켜 '2013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천연 알로에베라겔 증액 400%

✓ 면역력증진, 장건강, 피부건강  
도움을 줄 수 있음

2013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MASTER BRAND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300  
알로에겔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 알로에 FOR YOUR HEALTH